

내가 겪은 6.25

大韓齒科醫師協會

總務理事 李 赫



戰爭이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이렇게 말하리라.

「戰爭이란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드러났던 것이 숨겨지는 極限狀況」이라고, 世界의 戰史를 보면 간혹 어느것은 浪漫으로 표현되기도 하였고 「휴메니즘」이 승패를 가름지은 感激的인 장면도 보아 왔으나, 내가 少年期를 막 벗어난 18세때 겪은 6.25는 人間의 모든것을 앗아가는 罪惡의 一方的인 獨走에 불과했었다.

悲劇이라고 표현하기엔 너무도 온당치 못한 6.25를 나는 景福高等學校 3학년 大入試驗을 준비하는 책상위에서 맞았다.

人生의 꿈이 열리고, 無限한 可能性만을 추구하던 그 나이의 戰爭은, 내 人生의 門을 차단하고 不可抗力의 도전앞에 無氣力과 沈沈의 피곤을 짊어지게 만들었다.

6.25 勃發 30년을 맞은 오늘을 즈음하여, 것처럼 人類역사상 유례없는 同族相爭의 참혹한 죄상이 다시 再燃되지 않기를 비는 마음에 여기에 當時를 회고해 본다.

△

△

戰爭이라 부르기에 약간 싱거운 정도로 내게는 「서울」 함락이 허무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울의固守」를 국민앞에 公言했던 政府의 約束이 그야말로 현신직 버리듯 내팽개쳐진 사실이였기에 그 意味는 더욱 더 그러했던 것. 6월 29일 아침, 호기심과 공포가 교차하는 가슴을 쓸어안고 家族몰래 厚岩洞집을 나섰다. 사람들의 行列은 길고도 초라하였고, 누구하나 웃으며 한가롭지가 않았다. 不安과 공포

가 퇴색한 옷깃처럼 얼굴마다 가득했고 그들의 짐들은 무겁게만 보였다. 거리는 人波로 뒤덮였으며 간혹 人波를 가르며 질주하는 차량위엔 어깨에 붉은 완장을 두르고 赤旗歌를 부르는 狂亂의 무리를 볼 수 있었다. 그들에게 밀리는 피난대열의 群衆과 비교하여 善과 惡, 뺏은 자와 뺏긴 자의 表裏가 분명했다. 「벌거벗은 人間像」의 斷面— 恥部를 드러내놓고, 그 恥部위에 思想과 物慾으로 도색을 한 人間像.

착잡한 나의 心境을 헤아릴 길이 없었다. 더욱 내게 충격을 준것은, 몇몇 붉은 완장을 두른 靑莊年에 의해 外國人專用 Apt.가 占有되고 家指什器를 유유히 약탈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과연 누가누구의 허락을 받고 主人없는 물건을 노략하는 것인지, 外國人들이 사용하던 日用品을 하나라도 더 끌어내기 위한 소란은 가히 目不忽見이 아닐수 없었다.

나의 발걸음이 中央庁 돌담길을 걷고 있을때 나는 비로소 간새벽 내내 간헐적으로 들리던 총성의 意味를 분명히 할수 있었다. 이제는 主人이 바뀐 中央庁. 불과 몇시간 전만해도 태극기가 펄럭이던 國기 게양대에는 붉은 깃발이 더욱 피뵈처럼 붉게 나부끼고, 헤아릴수 없이 수많은 남루한 軍복차림의 北傀兵들이 중앙청 넓은 뜰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한 무리의 승냥이 떼처럼, 休息을 취하는 者, 銃器를 매만지는 者, 負傷한 상처에 새 붕대를 매고 있는 者들로 그들의 狂氣넘친 熱氣는 중앙청의 담을 넘어 밖까지 역겨운 냄새가 되어 흐르고 있었다.

처음보는 온갖 兵器들…… 銃身에 둥그런 彈倉

이 달린 따발총, 피물같은 탱크들은 중앙청의 주인이 이미 옛주인이 아님을 강렬히 시사하고 있었다.

이때 내가 목격한 것중 두고두고 내 뇌리에 살아 버둥대는 「현실」을 나는 지금껏 지우지 못하고 있다. 내가 中央庁 동편 담넘머로 중앙청 뜰의 「기상천외」한 사실에 놀라고 있을무렵, 흰 눈같이 고운 피부를 가진 국군병사 하나가 중앙청 정문의 인민군 보초에게 붙들려 가는 모양이었다. 그러자 正門에 서있던 將校같은 모양의 傀儡軍이 그 國軍에게 「X새끼」하는 욕과 함께 얼굴에 따발총을 난사하는 것이아닌가.

그 나이 어린 國軍은 많은 총탄을 맞고 죽었다. 애머고 어린 國軍兵士의 죽음, 그의 無氣力, 人民軍將校의 만행…… 그 순간 내게 엄습하는 공포와 불안의 충격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울래야 지울 길이 없다. 또한 그때 그병사의 目不忽見의 죽음에 대한 解答도 얻을 수가 없다.

그시각 中央庁 앞에는 으젓하고 점잖은 身分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간편한 남방셔츠에 중절모를 쓰고 모여들고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중앙청을 경비(?) 하고 있는 高級下士官인 듯한 人民軍들에게 궁금증(?)을 토로했으며 또 人民軍들의 答辯을 청취하고 있었다. 내가 듣기에는 대개 연료얘기, 전기얘기, 식량얘기들이 대부분인듯 하였으나 그들 사이에 오가는 對話로 미루어 보아 나는 하룻밤 사이에 서울시민 모두가 온통 共產主義者로 변해버린 듯 착각을 금할 수가 없었다.

△

△

나는 그후 수일을 성북동 이모부집에 숨어 살았다. 저들은 老少를 막론하고 男子라는 남자는 모조리 徵集하였으며 소위 容共分子들의 만행은 극에 달해 있었다. 얼굴이 새하얀, 두 눈만 달린 철갑자들이 이마에 수건을 동이고, 손에는 몽둥이를 질질 끌며 집집을 더듬고, 걸핏하면 인민재판 소문이 들렸고 「반동분자 X명을 처단했다」는 끔찍한 소문이 꼬리를 이었다.

송곳같이 뾰족히 착검한 소련제 장총을 멘 人民軍들이 2人組씩 짝지어 일정간격으로 大小路를 누비고, 아직 10대티를 벗지 못한 어린 人民軍들이 잡화상엘 들어가 國產라이타(휘발유용으로 심지가 있었다)를 들고 北傀儡화페로 흥정하다가 머리를 긁으며 돌아서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언제부터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부터 거리에는 男子들이 허리며 자주빛 붉은 리본

을 매고 다니는 사람이 급증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자건거에도 車輛에도 같은 현상이었다. 그것이 나도 빨갱이라는 思想의 表示인지, 生存에 집착한 本能의 발로인지 분명히 구분지을수는 없었다.

나는 서울이 적의 수중에 떨어진지 20일간을 이모부집에 은신해 있다가 어머니와 함께 쌀을 구하기 위하여 시골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한 현상은 시골이라고 예외는 아니었다.

共產治下의 生活속에서도 밤이면 빼놓지 않는 것이 라디오 청취였다. 그 라디오덕분에 戰況 파악엔 항상 앞설수가 있었고, 나 자신도 勝戰에 대한 기대와, 必勝의 思考에 고무될수 있었다.

이때부터 밤낮으로 비행기의 폭음이 잦아졌고, 공습에도 차차 익숙해져 갔다. 그러자 날이 감에 따라 人民軍의 횡포가 노골화되기 시작했으며, 戰初와는 달리 그들의 약탈과 살인이 常識化되기 시작했다. 뿐만아니라 강제동원, 강제부역, 강제징집이 성행되어 너나 할것없이 座不安席의 苦難을 겪어야 했다. 어찌 그 統治의 3個月을 겪은 體驗을 여기에 일일이 기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꼭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일이 있다. 그때 우리동네에 독실한 기독교 집사 한분이 계셨는데 수요일이면 꼭 꼭 모여서 삼일예배를 드렸었다. 의용군 징집바람이 그 동네에도 어김없이 닥치고 집사아들을 포함한 동네 청년 5명이 징집을 당했다.

그 집사는 아들을 보내면서도 의연한 자세로 찬송가를 부르며 그 아들에게 “죽을때는 주예수여 영혼을 받드시옵소서 하고 죽어라”는 말로 전송을 했다. 물론 징집된 그들은 그후 전쟁이 끝나고도 돌아오지 못하는 불귀의 객이 되었다. 그러나 休戰이 된지 약 한달이 되었을까 할때 그 집사의 아들만이 되돌아온 것이다. 모두가 죽은줄만 알았던 사람이 돌아온 기쁨을 감격하기 전에 나는 이런것을 느꼈다. 「예수의 정신에서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는 건져졌다」는 것을. 그 집사의 아들은 지금도 老軀를 이끌고 교회일에 精進하고 있다.

—공포의 35일, 나타났던 惡은 모두 사라지고 숨은것 같았던 하나님의 義는 다시 나타난 것이다.—

△

△

오늘 우리의 現實은 어떤가.

金日成의 남침야욕은 더욱더 사악해져만 간다. 무엇이 애국하는 길이며, 무엇이 利敵하는 길인가. 그 價置基準의 確實·不確實만이 우리의 生死를 가름 짓는 것이다. <끝>